

보도해명자료 (18. 5. 16)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한전의 한숨... 유가 뛰는데 원전8기는 놓고 있다

(18. 5. 16,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정부는 누구나 아는 경제 원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3대 원료 중 원가가 급상승한 LNG와 석탄의 발전 비중은 늘리고 가장 값싼 원료인 원자력발전 비중은 줄이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해당 기사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인위적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와 석탄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또한, 전체 원전의 3분의 1을 동시에 정비하는 건 이례적... “보통 원전 예방정비는 두 달 안에 끝난다”, “탈원전정책 때문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 현재 전체 원전 24기중 8기가 정비중인 것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관련이 없음

* 계획예방정비(6기): 한울 5, 신고리 3, 월성 2, 신월성 1, 한빛 3, 고리 2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점검 등(2기): 한빛 4, 월성 1

① 특정시기에 전체원전대비 정비원전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작을 수는 있으나, 이는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를 일정주기별로 수행함에 기인함

- 즉,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경수로형 원전의 경우엔 18개월을 주기로, 중수로형 원전의 경우엔 15개월을 주기로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는데,

- 일부 원전에서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견되어 정비기간이 늘어날 경우까지 함께 감안할 경우 시기별 정비원전비중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

※ 최근 5년간 정비원전의 수는 정비주기 및 정비사유에 따라 3기~8기로 다양

< 최근 5년간 원전정비 현황 (5.12~16일 기준) >

구분(수)	'13년도 3기	'14년도 4기	'15년도 6기	'16년도 5기	'17년도 5기	'18년도 8기
정비원전	(정상4, 기간연장4)	(정상3, 기간연장1)	(정상4, 기간연장2)	(정상3, 기간연장2)	(정상1, 기간연장4)	(정상6, 기간연장2)
전체원전	23	23	23	24	25	24

* 정상: 계획예방정비, 기간연장: 당초 계획대비 정비기간이 1달 이상 연장

- '16년에서 '18년 초까지 계획예방정비 원전수가 증가한 사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건설 과정에서의 작업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이 다수호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비기간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 정비기간: 과거 평균 2~3개월('15~16년) → 최근 평균 6~7개월('17년)

② 통상적인 계획예방정비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2달 내외가 소요되나, 정비과정에서 안전관련 주요 설비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정비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임

※ 최근 5년간 주요 정비 사례

연도	원전	정비기간	사유
2013	신고리1호기	‘13.4.8.~’14.1.4.(272일)	부품 품질서류 위조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
	한울4호기	‘11.9.9.~’13.8.14.(706일)	증기발생기 교체 및 안전성 점검
2014	한울3호기	‘14.3.8.~’14.10.3.(210일)	증기발생기 교체(2대) 및 원자로 외 가압기 등 주기와 배관에 대한 용접부 검사
2016	한빛2호기	‘16.5.4.~’17.3.22.(323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점검 및 보수
2017	고리3호기	‘17.1.19.~’18.5.11.(478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점검 및 보수, 증기발생기 이물질 제거 등

③ 일부 원전의 경우 정비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계획예방정비가 아니라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안전성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기준과 일치에 따라 철저히 정비함에 기인한 것임

- 즉, 원전의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재가동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비기간의 길고 짧음이 이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044-203-5260)
 조영길 사무관(044-203-5261)
 원전산업관리과 유성우 과장(044-203-5321)
 김진상 사무관(044-203-5323)